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9. 4. 22.(월) / 총3매(본문2, 참고1)
담당 부서	철도시설안전과	담당자	- 과장 김유진, 사무관 이성민, 주무관 배상철 ☎ (044)201-4623, 4624, 4627
보 도 일 시		2019년 4월 23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 23.(화) 06:00 이후 보도 가능	

23일부터 철도 미세먼지 저감 전담조직(TF) 확대 운영 환경·차량·교통 전문가 참여...하반기 저감대책 수립까지 운영키로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국가철도 역사·터널 등에서의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·관계기관 전담조직(이하 TF)*을 23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.

* (구성)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(단장), 환경부, 환경·철도차량·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, 철도공단·철도공사·(주)SR 등

- 지난 2~3월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비상저감조치가 14일이나 발령되는 등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커지고 있으며, 특히 철도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더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.
- 이에, 국토교통부는 2월부터 운영하던 국가철도 미세먼지저감 TF를 확대 개편하여, 오늘(4월 23일) 첫 번째 TF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 '국가철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'을 수립할 계획이다.
-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철도 지하역사와 터널구간 내의 미세먼지(PM₁₀)와 초미세먼지(PM_{2.5}) 저감방안, 철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감소대책 등을 중점 논의한다.

< 검토중인 국가철도 미세먼지 저감방안 >

- (외부 미세먼지 차단) 공조설비 개량, 방풍문 설치, 공기청정기 설치, 전기식 집진장치 설치, 터널청소차 구매·운영, 공기질측정기 설치 등
- (철도 미세먼지 저감) 자갈도상 개량, 친환경 철도차량 교체, 광역철도 및 전철화사업 집중 투자 등

- 또한, 철도에서 미세먼지에 가장 취약한 터널구간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'14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*으로 개발 중인 '터널 미세먼지 제거차량'의 성과를 공유하고, 현장시연 행사도 진행한다.

* (과 제 명) 나노기술을 적용한 실시간 지하구간 오염물질 제거기술 개발
(연구기간) '14.9~'19.5

(주관기관) 한국철도기술연구원, 한국과학기술연구원, 서울교통공사

- 국토교통부 고용석 철도안전정책관은 “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철도는 안전확보와 더불어 공기질 개선 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”면서,

- “앞으로 TF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환경부,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가철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 이성민 사무관(☎ 044-201-462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시제품 제원

- 차량구성 : 3량 1편성, 길이 약 30m(폭2.6m, 높이 3.5m)
- 이동속도 : 최고 60km/h이상, 집진 작업속도: 5km/h이상
- 동 력 : 배터리(리튬계) 구동 및 집진, 집진작업 3시간 이상
- 목표성능 : 흡입공기의 초미세먼지 95% 이상 집진

□ 차량구성



1호차 (운전, 제어, 공기압축기 등)	2호차 (미세먼지 집진장치)	3호차 (운전, 제어, 대형집진팬)
제어차(구동모터, 제어장치), 배터리, 충전기, 공기압축설비	흡진부, 집진부(프리필터, 중배기, 전기집진장치), 덕트부(팬 및 부유먼지 흡입덕트, 제어반)	제어차(구동모터, 제어장치), 배터리, 대형집진팬

□ 시제품 사진

